지역 소식통

고창군, 군정 주요사업 점검

고창군이 중·대형급 주요 프로젝트들이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긴급 점검에 나섰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철태 고창부군수 주재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130여개 사업에 대해 담당 사업팀장의 추진현황 보고와 문제점 및 쟁점사항, 향후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살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노을 생태갯벌플랫폼 조성사업 △농촌관광스타마을 조성사업 △고창(호남권) 드론통합 지원센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의 행정절차와 각종 용역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강조됐다. 또한, 해빙기 이후 본격화될 △외국인 기숙사 건립사업 △상하면 보건지소 신축사업 등 군민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설 명절 가축 전염병 방역태세 강화

정읍시는 빈틈없는 가축방역 관리를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비상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설 연휴 시작 전인 8일과 직후인 13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협 공동방제단(7대), 시 방역차(3대) 등 가용한 모든 소독자원을 동원해 축산시설과 농장에서 전면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읍·면·동 버스터미널 및 역 등에 현수막을 설치해 귀성객 등이 가축 사육시설과 농장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축산농가 및 축종별 생산자 단체에도 문자메시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필요한 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설 연휴동안 축산농장·시설은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로 농장·시설 내·외부와 장비·물품을 일제히 소독하고 축산차량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해 소독하면 된다. 시는 2월 말까지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읍면 방문 나눔대화 성료

심덕섭 군수,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 만들것"

올 농·어업 소득향상,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유

심덕섭 고창군수가 2024년 갑진년 '활력고창 나눔대화'를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 했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군수는 지난달 11일 고창읍을 시작으로 전날 성송면까지 14개 읍·면을 돌며 '2024년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를 진행했다. 나눔대화는 올해 군정방향 보고, 읍·면 주요 사업 설명, 건의사항 수렴과 답변, 경로당 방문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심 군수가 올해 농·어업 소득향상 사업과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직접 설명하며 관심을 끌었다.

군은 올해 '농업보조사업 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 플랫폼',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구시포항 위판장 건립'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군민 소득을 높이고 생활여건 개선에 나선다. 또한 농·어촌 혼합도시의 특성상 농민, 어민, 다문화, 청년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사업이 펼쳐진다. 실제 올해 나눔대화에선 "어촌마을 아이들의 책 읽을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귀농·귀촌인 마을기반 지원사업을 확대해 주세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국제우편요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세요" 등 삶과 직결된 건의사항이 주를 이뤘다.

이외에도 총 140건의 건의사항이 제시됐으며 주요 내용은 도로 개설, 농로·마을안길 확·포장, 가로등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장 조성, 읍·면사무소 신축, 관광 인프라 확충, 소공원 시설 정비,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심 군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와 주민의 참여를 끌어올렸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 및 과장이 직접 건의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답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군민대화 직후에는 현장행정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기회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군수는 지난달 11일 고창읍을 시작으로 전날 성송면까지 14개 읍·면을 돌며 '2024년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를 진행했다.

부안군, 13개 읍·면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 성황리

236건 군민들의 값진 의견 받아

권익현 부안군수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한 견인창래(堅忍創來)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가 5일 위도면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달 26일 주산면을 시작으로 포문을 연 이번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는 하루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2023년 주요성과와 2024년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형식과 격식을 최소화해 군민과의 거리감 없는 대화를 진행했으며, 경로당·사업장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하고 건설적인 여론을 수렴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 발전을 위해 군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군민의 삶을 한단계 성장시키는 군정을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한 견인창래(堅忍創來) 군민과의 열린소통대화가 5일 위도면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편 군은 군민과의 대화에서 마을안길포장, 배수로 및 하수도 정비 등 총 236건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받았으며,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은 즉시 현장확인 후 신속히 추진하고 그 밖의 건의사항도 제도개선, 재정여건, 공익성 등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민원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지원 시책 내용 담은 책자 배부 등

정읍시는 7일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정읍시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7개의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을 비롯 기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자금, 창업, 기술개발, 보증, 소상공인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주요 지원시책을 설명하고 각 기관별 사업담당자와의 일대일 심층 상담을 진행해 기업인들의 사업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취업중개센터, 새일센터, 청년지원센터 등 홍보 창구를 설치해 각 기업체의 만족도를 제고시켰다.

또한, 이날 참석한 기업체에 정읍시를 비롯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지원 시책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배부했다.

시는 책자에 담긴 내용을 더 많은 기업과 공유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등록, 온라인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관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시책들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부안군은 7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물가 상황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안상설시장을 시작으로 줄포상설시장, 곰소시장, 부안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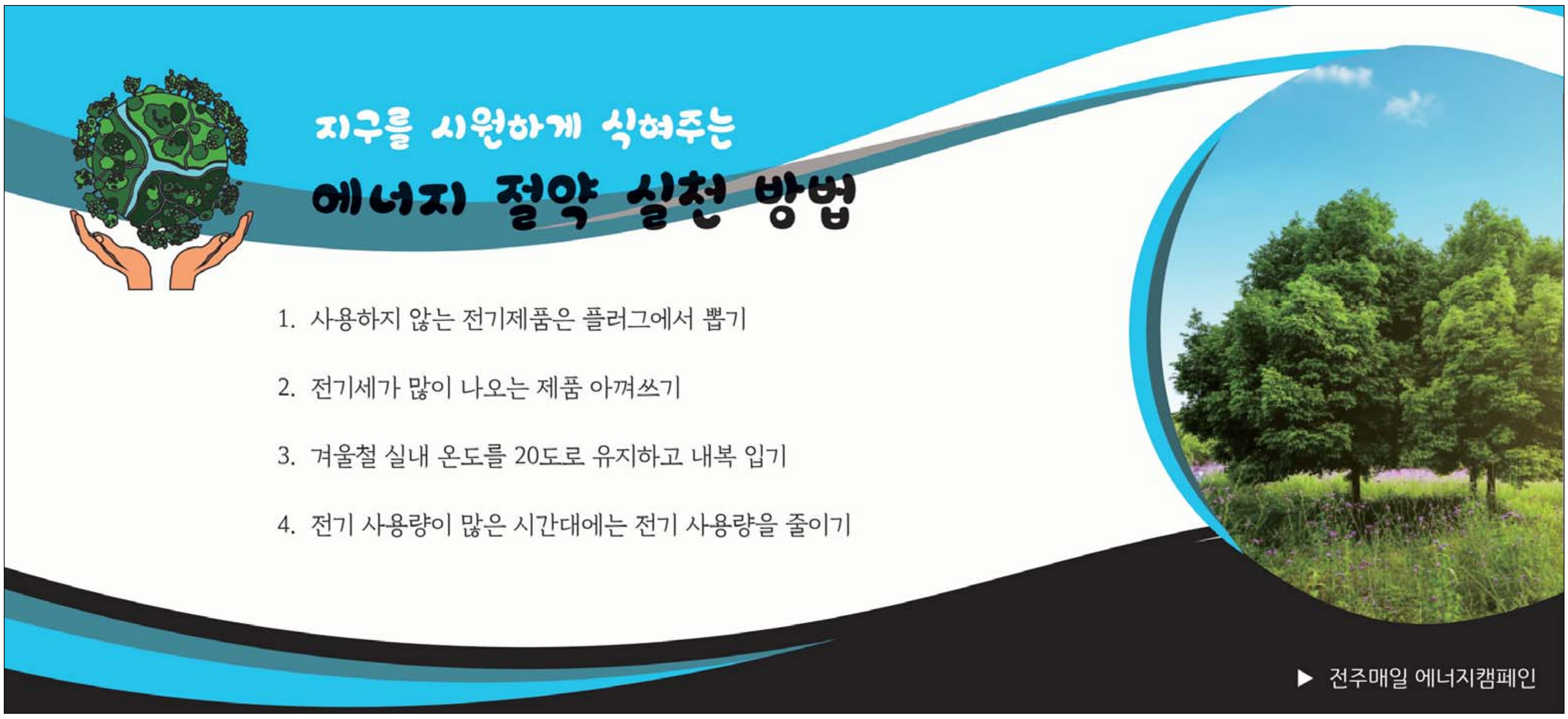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500여명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으며, 부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명절선물과 농특산물, 제수용품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부안상설시장에서는 2월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수산물(국내산)과 농축산물 구매고객에게 구입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을,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수산물과 농축산물 각각 환급받을 수 있어, 부안상설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의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을 준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설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정읍시는 설 연휴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공공보건기관 19개소를 비롯한 22개 의료기관은 일자별로 지정된 근무일에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18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공공심야약국(샘골약국)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정읍아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보건소에서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시민들에게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안내하고 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정보는 정읍시보건소 (☎539-6137~8), 보건복지콜센터 129, 응급의료정보센터(홈페이지 www.e-gen.or.kr), 119구급상황 관리센터, 정읍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